

두근두근 낭만여행 힐링영광

산들 바람에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답답함을 풀자면 여행만한 것이 없을 듯 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심스럽게 '힐링 여행'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영광은 천년의 맛과 멋, 낭만이 있는 여행의 도시이다. 해당화길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백수해안도로, 기암괴석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해안노을길에서 바라본 불타는 노을이 사시사철 관광객을 유혹하는 곳, 영광으로 떠나보자.

붉은 노을 뒤로 하룻밤 동화 속에 빠져본다



해안노을길에서 바라 본 황홀한 일몰 풍경.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백수해안도로.

멈추고

16.8km 해당화길 백수해안도로
광활한 갯벌·불타는 노을 숨이 멎고
2.3km 해안노을길 '바다가 발 아래'

느끼고

수 많은 이야기 간직한 기암괴석
노을광장 지키는 '팽이갈매기'

즐기고

국내 유일 노을전시관·해수온천랜드
10월이면 해안도로 노을축제
노을관광지·뚝배집 개발 추진

◇ 해안노을길에서 바라본 불타는 노을
영광군 백수해안도로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해당화길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백수해안도로 기암괴석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해안 노을길에서 바라보는 황금노을은 일상에 지친 가슴을 뽕 뚫어지게 한다. 최근에는 백수해안도로와 이어지는 77번 국도를 따라 영광대교와 칠산타워가 준공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 서북부에 위치한 영광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해안으로 지는 일몰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 중에서도 백수해안도로는 백수를 길용리에서 백암리 석구미 마을까지 16.8km에 달하는 해안도로로 기암괴석·광활한 갯벌·불타는 석양이 만나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이다. 길을 가다가 아무 곳이나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그 곳이 바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특히 해안도로 아래 목재 데크 산책로에 조성된 2.3km의 해안노을길은 바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걷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06년 국토해양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2011년 국토해양부의 제1회 대한민국 자



노을광장 중앙에 설치된 팽이갈매기 조형물.

연경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국내 유일의 노을전시관을 비롯해 해수온천랜드, 다양한 펜션과 음식점 등이 갖추어져 있다. 노을전시관에서 노을이 생기는 원리와 현상을 배우고 난 후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를 감상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매년 10월 노을을 주제로 한 해안도로 노을축제도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이다.

◇ 노을광장 지키는 팽이갈매기 조형물

최근 백수해안도로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곳이다. 바로 노을광장이다. 2018년 11월 착공해 올해 공사가 마무리된 곳으로 칠산바다의 아름다운 노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길이 40m, 폭 3m)와 주차장(25면), 광장(4790㎡), 데크 산책로(230m) 및 야간 경관조명까지 설치돼 있어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노을전망대 중앙에는 칠산바다 칠산도의 상징이며 천연기념물 제389호인 팽이갈매기 날개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팽이갈매기 조형물(작품명 '끝없는 사랑'(Endless Love)은 높이 3.6m, 폭 3.2m의 크기

로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백년해로의 기원을 담아 제작 설치됐다.

팽이갈매기는 칠산바다 칠산도에 동지를 틀고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새이다. 또 팽이갈매기는 한 번 짝을 이루면 평생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 옛적 어떤 남녀가 부부의 연을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을 했다가 팽이갈매기로 환생해 사랑을 이뤘고 칠산바다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 곳을 지켜왔으며, 이후 칠산바다에 수많은 팽이갈매기가 번성해 이 곳을 수호하는 명물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를 '멈추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을관광지 조성과 뚝배집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백수해안도로를 따라 위치한 아늑한 펜션에서 하룻밤 동화속의 주인공이 돼 보는 것도 유쾌한 일"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광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에능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10월호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텍 스 : 062-222-0195

특집
생애 최대 프로젝트
내 인생의 첫 책

- "소중한 것을 책에 담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출판 도전 활법
- "나의 첫 책, 감동의 시작이죠" 자신만의 책 펴낸 3인의 저자
-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준비하세요" 도서관 기획책 교섭 등 전문가 카이드로 출판 도전 가능

기대 폭 넓어진 아독출판
올가을 우리집에 그림 한집 걸어둘까
미러보는 '아트광수집'

백제남의 대영로에 자리잡은
연예인의 학벌과 학력, 의미와 영향력은?

예쁜 초대석
'아름답게 말합니다' 파넬 작가
강원국
"발과 글, 살아있어야 일된 사회조"

호보로 만나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문화를 품은 건축물에서
진한 모더니스트
감성이 스민 공간
박인환문학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신사를 가다 ③-머큐리
자유로운 거담 배치
무질서 속 조화 표현

프랜차이즈 클래식, 명화를 만나다 ①
영희 '아가씨'와
장 필립 라모의 '탕부랭'

희애미 공간
'주얼리 스톤'
파격적인 예술카페
'No.8 in binor'

예감이 반난 미 체험
광주 FC유니폼 입고 2021시즌 활약, 임지성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봉 보양자 인정받은 박서량
카드프 광주르 우수 곡성 출신 '수퍼 바리톤' 김기훈

문화의 파이프라인 퍼뜨리는 예술단체는
"우리 밑과 우리 정서에 흠뻑 빠져주세요"
광주-전남 우리가족 부르기

광주의 '예술가들의 한 끼'에
화가 최육경의 아재 연주